

보성벌교갯벌, 사람과 자연 공존 모범 모델 구축한다

갯벌습지보호지역위 회의 세계자연유산 생태 보전·관리 방안 논의
바닷새 74종 대상 ‘갯대중’ 선정...생태관광 등 브랜드 활용 모색도

‘세계자연유산’인 보성 갯벌을 대표하는 갯대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보성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를 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보성벌교갯벌의 생태 보전과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형빈 부군수를 비롯해 갯벌 생태 전문가, 지역 위원, 세계유산재추진단, 관계 공무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성벌교갯벌 생태 환경 조사 연구 용역’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갯대중 선정 ▲서식지 복원 ▲생태관광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갯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지역 주

민들의 삶,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강조됐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 모델 구축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군은 현재 ‘보성벌교갯벌’에 서식 중인 바닷새 74종 약 1만7000여 개체를 기초자료로 삼아, 향후 보성을 대표할 갯대중을 선정해 생태관광 및 지역 브랜드 자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락꼬리마도요·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제시됐으며, 위원들은 갯대중이 군의 생태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축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바닷새 주요 서식지의 지속적 관리 및 탐조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교육 거점 확보를 위한 전담 조

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 관리 센터’ 설치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향후 센터의 기능과 운영 주체, 공간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보성벌교갯벌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2026 세계유산축전’ 제안서도 보고되며, 축전 개최 성공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서형빈 부군수는 “보성벌교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 대표 갯벌 중 하나로서, 생물다양성과 함께 사람의 삶이 깊이 뿌리 내린 소중한 공간”이라며 “갯벌 위에 살아가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향후 추가 생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복원 대상지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사회와 자연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갯벌 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2025년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보성벌교갯벌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고흥 출신 수군들, 임진왜란 한산대첩 주역이었다

판옥선·전사·중상자 절반 차지
홍양수군 가치 재조명 학술대회

임진왜란 당시 고흥 출신 수군들의 활약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고흥군이 지난 19일 군청 우주홀에서 임진왜란 시기 홍양수군 가치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학술대회에는 공영민 군수를 비롯해 향토 학자, 문중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실시한 난중일기 속 고흥인물 조사 용역 결과를 군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홍양수군, 새롭게 알리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조 강연은 이상준 전 육군박물관 부관장이 맡아, 이순신의 기록인 ‘난중일기’의 성격과 가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특히, 전투의 생생하고 꼼꼼한 사실적 묘사를 알 수 있는 일기를 발췌해 이순신 장군의 외적 격퇴에 입한 놀라운 집념과 집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수경 지역유산연구원장은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임진장초’ 등에 기록된 임진왜란 당시 고흥 출신 인물과 고흥에서 활동한 인물을 구분해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분석했다. 기존에 고흥군에서 발간한 임진왜란 인물 자료와 대조해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이순신의 지휘 아래 전라좌수영에서 출전한 판옥선은 총 24척이며, 이중 홍양에서 출전한 1만 4포의 판옥선은 11척으로, 전라좌수영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산대첩에서는 전라좌수영 전사자 19명 중 13명, 중상자 115명 중 59명이 홍양수군이었다. 홍양수군은 한산대첩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했다. 이수경 원장은 임진왜란 시기 홍양수군 정결과 그의 손자 정연, 송대립, 송희립, 송덕일, 신여량 등의 행적을 검토한 후 홍양수군에 대한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송호철 국가편찬위원회 고흥 사료조사 위원은 임진왜란 전후 홍양(고흥) 향리의 전쟁 수행과 활동을 다루며, 기존 연구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향리의 활동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특히, 향리의 주요 업무로는 군량의 생산과 수송, 무기 생산과 공급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모교 활동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송호철 위원은 홍양 향리가 군현의 업무와 전쟁 지원을 무리 없이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 군공을 인정받아 면향, 관직 수여, 공신 책록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현 국가편찬위원회 통영 사료조사 위원은 ‘통영 세병관 작목’을 통해 임진왜란 후 통영의 군관을 분석하며 홍양 출신 20명을 소개했다. 이 자료는 지역에서 처음 소개되는 자료로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들은 이순신과 수군으로 활동했거나 권율과 함께 육군 활동을 한 군관, 박광전 등 의병 활동에 참여한 인물로 구분되었다. 또한, 노량해

전 전사자로 알려진 송정립과 노윤발 등이 생존자로서 삼도수군통제영 군관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임진왜란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군관들의 2세들이 전쟁 후에도 삼도수군통제영의 군관으로 활약했음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 김희태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지정 토론자로 송시중 고흥문화원장, 나상필 (재)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재 (재)통영 충렬사 위원 등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임진왜란 당시 고흥 출신 수군들의 활동을 재조명하고,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를 통해 군민들이 우리 고흥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후대에 정확한 역사 인식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난중일기 속 고흥인물 조사 용역과 홍양수군 가치 재조명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홍양수군학교를 설립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과 역사의를 고취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 구봉산권 종합관광개발 3대 핵심관광시설 연결 종합휴양지 완성도 높인다

광양시의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한 관광 개발 청사진이 구체화 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주재했으며, 관계 부서장과 ㈜LF리조트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케이블카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사·중점 및 노선 구상, 연계 활성화 시설 계획, 구봉산권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조성사업은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POSCO 체합형 조형물로 구성된 구봉산의 3대 핵심 관광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종합관광휴양지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구봉산 정상과 어린이 테마파크를 잇는 케이블카, 구봉산전망대에서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알파인 슬라이드’, 구봉산-봉화산을 잇는 ‘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770’ 등을 조성해 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가 지난18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력도와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2월 ㈜LF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LF리조트가 500억원을 투자기로 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구봉산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관광개발사업 중에서도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얼마 전 개장한 ‘구봉산숲속야영장’을 시작으로 구봉산권 종합관광개발 사업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구봉산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체합형 조형물은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구봉산 핵심 관광자원의 동선을 효율화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연계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최종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3개 권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전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어르신 생활 돕는 마을활동가 간담회

30여명 참석 활동내역 등 공유

구례군이 지난 18일 2차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두번째 열린 간담회는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들과 읍·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활동내역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위촉되어 읍·면사무소와 협의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각종 행정 및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가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마을 자원을 연계해 각종 고지서 납부 등 생활편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한 활동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보람 있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주신 마을활동가분들을 위해 활동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국민팜 엑스포 박람회 ‘우수지자체상’

귀농·귀촌 정책, 여행 명소 홍보

곡성군이 ‘국민팜 엑스포 박람회’에서 미래농업 비전,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홍보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사진>
군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 국민팜 엑스포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도권 도시민과 귀향을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군은 귀농·귀촌정책, 곡성물, 고향사랑기부제, 곡성여행 등을 안내하고 곡성의 대표 농특산물인 백세미, 토란, 토란가공품, 발효식초, 멜론(멜론청, 막걸리), 과일주스(사과, 포도, ABC), 현미, 오색미, 오색미가공품 등을 전시하

여 도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귀농·귀촌정책은 1세대 5백만원 보조100%인 농가주택 수리비, 1세대 1200만원 보조 50%, 자담 50%인 신규농업 인력육성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였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도시민들이 곡성군의 지리적 정보와 대표 농특산물 백세미, 토란, 체리, 멜론, 블루베리 등 작목 선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체계적인 계획이 있다면 수도권 도시민들도 성공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으며, 우리 군도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지속적인 도시민 유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

여수시, 섬박람회 콘텐츠 발굴 日 박람회 시찰

오사카·간사이 찾아 참여 요청

복합해양도시 구축 사례 조사

일본 출장 중인 정기명 여수시장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나섰다.
정 시장은 방문 이틀째인 지난 20일 오사카·간사이 박람회를 찾아 일본 국제 박람회 협회 이치노키 마나츠 부사무총장과 환담, 박람회 운영 등 노하우를 청취하고 섬박람회 주요 콘텐츠를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 21일과 22일에는 섬박람회 사후 활용과 복합해양관광도시 구축 벤치마킹을 위해 오사카 만국박람회 기념공원과 일

본 외가야마 마리아 시티를 둘러봤다.
정 시장은 “섬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도시 숲 정원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오사카 만국박람회 기념공원 등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가야마 마리아 시티는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과 매우 유사한 만큼 눈여겨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여수시는 지난 4월 해수부 주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복합해양레저타운과 전시·체험관, 플로팅 마리아 등으로 구성된 안을 제출했으며,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2곳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채널본부장 chkim@